스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대부분의 스님들은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자의 삶에 감화돼 출가의 길을 선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품고 기본교육 기관에서 배우고 선원에서 정진하며 출가 생애의 초반기를 보낸다. 그러다 어느 시기가 되면 소임을 맡아 가람을 지키고 전법과 포교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수행과 소임이 어우러진 출가 생애의 중반기를 살아간다.

필자의 하루는 오전 4시에 시작돼 오후 7시쯤 일과가 끝난다. 이런저런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오후 9시가 돼서야 오롯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대다수 스님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찰은 대중에게 전법과 신행의 공간이지만, 스님들에게는 수행처이자 삶의 안식처다. 수행·포교 공간에서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상은 이미 쉼의 가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도시와 자연을 오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원불교는 연구년과 휴식년, 정양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현장 업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연수·명상 등을 통해 포교 역량을 강화한다. 천주교 역시 일정 기간 사목 후 안식년과 연구년을 갖는다. 피정의 집이나 수도원에서 침묵과 기도, 독서와 상담 등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목 역량을 습득한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현실은 어떤가. 언젠가

사회 직장, 타종교서는 휴식 제도화
스님 휴식 위한 제도·공간 마련 필요
승가 쉼, 사찰 운영·포교 역량 도와

선배 스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주 4일 근무가 시행되면 어느 요일에 쉬는 것이 좋겠느냐는 청취자 사연을 들었다. 방송을 들으며 문득 부러운 마음이 들어 '스님들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적었더니, 진행자 스님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감했다.

스님들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 고요히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수행력을 되살리는 시간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신이 머무는 사찰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도반 스님의 절이나 다른 공간을 찾아 겨우 숨을 돌린다.

일반인과 이웃 종교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사찰은 많지만, 정작 스님들이 머물며 회복·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자 어르신들을 위한 웰다잉 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스님들의 품위 있는 회향과 생애 후반기 설계를 돕는 교육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종단의 근간은 승가다. 스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종단도 건강할 수 있다. 수행자의 품위를 유지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법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스님들의 휴식은 멈춤을 통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며, 출가 당시의 발심을 떠올리며 삶을 점검하는 수행의 연장이다. 이러한 회복은 결국 안정적인 사찰 운영과 포교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한 승가는 건강한 종단을 만들고, 건강한 종단은 더 넓고 깊은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에 응답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쯤 산문을 닫고 모든 대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법계와 소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제도를 마련하고, 교구별로 재충전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수행공동체를 지키는 지혜일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와 공이 드러내는 가짜 현실

〈空〉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우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디지털 미디어가 재현한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문제는 이 재현물이 실재를 대체한다는 점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의도에 따라 가공되고 형성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 이미지는 현실을 단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조직하고 규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뉴스는 사건을 선택·배열하고,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특정 콘텐츠를 부각하며, 소셜미디어는 화려하게 편집된 장면만을 노출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은 축소·왜곡되지만, 우리는 이를 온전한 실재로 받아들인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암소를 건네는 풍습이 있었다. 보통은 한두 마리면 충분했다.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청혼하며 뜻밖에 아홉 마리의 암소를 보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는 답했다. "한 마리만 주면 그녀는 그만한 가치에 머물겠지만, 아홉 마리를 주면 그 이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미디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특정 인물은 반복적으로 왜곡돼 재현되고, 어떤 사건은 과장되거나 은폐된다. 민담 속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볼품없는 존재로 규정한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구축한 가상

디지털 미디어, 특정 의도로 가공·형성
가상 세계, 현실보다 강하게 판단 지배
공 이해, 가상-본질적 실재 간극을 자각

의 세계는 실제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판단을 지배한다. 이때 추장의 아들은 합의된 현실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아홉 마리의 암소를 통해 그 재현된 현실을 해체한다.

불교적 사유로서의 공(空)은 세상에 고정된 본질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은 실체가 없는 가짜 실재이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구를 실제로 오인함으로써 타인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고정된 프레임에 묶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공의 사유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실천적 인식론이다. 우리가 접하는 이미지와 정보가 어떻게 선택·구성됐는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개입해 있는지 성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심하는 눈을 갖는 것이며, 미디어가 재현한 가상과 본질적 실재 사이의 간극을 자각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미디어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성된 현실 속에 갇히지만, 그 세계가 공함을 자각하는 순간 현실의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끊임없이 가짜 현실을 복제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의 시선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세계인가, 아니면 세계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기획된 하나의 장면인가."

社 說

태고종의 변화, 화합과 책임으로 증명해야

태고종이 오랜 내홍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 앞에 서고 있다.

한때 종단 내분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까지 박탈당하며 대외적 위상이 크게 추락했던 태고종이 최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종단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고종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민통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사회 현안에 응답하는 행보 '주목'
신뢰와 교육 통한 종단 중흥 기대

부처님오신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태고종 청련사를 찾아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태고종의 대외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6월 1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 종도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고종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해동 율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정통종단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사회 교화에 앞장서 국민과 상생하는 대승 교화의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울림이 컸던 메시지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선언문이 아니라 종정 운경 스님의 자성의 법어였다. 운경 스님은 "정통종단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법난의 책임을 모두 외부에 돌려서는 안 되며, 과거 종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 역시 오늘의 위상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인정했다.

특히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며 셋째도 화합"이라는 당부는 무겁게 다가온다. 수행공동체의 분열은 신뢰를 잃게 하고, 신뢰를 잃은 종교는 사회를 이끌 수 없다. 정통성은 역사적 계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법맥에 걸맞은 수행과 청정한 종풍, 시대적 책임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통성이 된다.

태고종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문화유산 보존, 국제교류 확대, 청년 포교 등 다양한 종책을 추진하며 종단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종도들 역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종단 중흥을 향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가꾸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순간의 관심과 일회성 행사로는 종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제도 개선, 종책연구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화합이 지속될 때 변화는 비로소 종단의 체질이 된다.

태고종이 최근 보여준 공공선의 실천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종풍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6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천용사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은 6월 21일 오전 10시 서천 천용사에서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